

마찰음 /s/가 청각장애 아동의 선·후행하는 모음의 지속시간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박희정 · 신혜정 · 박 현 · 채정희 · 석동일

연구목적 :

청각장애 아동들은 청각적 피드백의 손실로 인하여 분절적 측면 뿐만 아니라초분절적인 측면도 건청 아동과는 다른 형태를 나타낸다. 석동일(1999)은 청각장애인의 모음 조음의 특성을 고찰한 결과, 저모음의 지속시간이 길며, 고모음의 지속시간이 짧다고 하였다. 또한, 청각장애인들은 자음 산출에 있어서 가시적인 효과가 높은 음소가 낮은 음소에 비해 정조음률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청각장애 아동의 자음 중 가장 많이 오조음하는 /s/의 오류 형태에 따라 선·후행하는 고모음 /i/와 저모음 /a/의 지속시간을 비교·연구하는 것이다.

연구대상 :

보청기 착용 아동 4명, 인공와우 이식 아동 4명으로 총 8명의 청각장애 아동이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되었다. 선정된 청각장애 아동의 평균 연령은 8세 2개월이었으며, 남자 5명 여자 3명이었다. 통제 집단은 남녀 각 1명의 기질적인 장애가 없는 아동으로 평균 연령은 9세 10.5개월이었다.

실험 방법 및 결과 분석 :

전설 고모음 /i/ 및 후설 저모음 /a/가 마찰음 /s/와 선·후행에 결합된 V1CV2 형태의 무의미 음절을 어음자료로 사용하였다. 또, 마찰음 /s/의 오조음 패턴에 따라 /c/, /t/, /z/, /ʃ/, /s/로 분류한 후, 정상집단과 비교하였다. Praat(4, 1, 9)를 이용하여 녹음·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및 고찰 :

청각장애 아동이 건청 아동에 비해 전반적인 음절의 지속시간이 더 길었다. 아래의 그림은 무의미 음절내에서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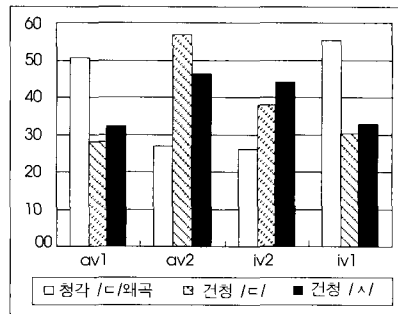


Fig. 1. /c/으로 왜곡 및 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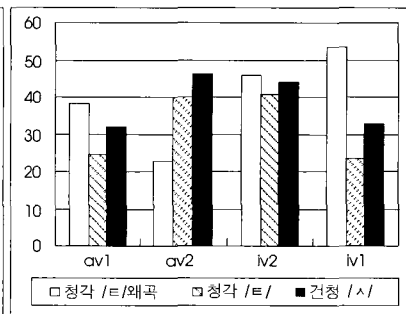


Fig. 2. /t/으로 왜곡 및 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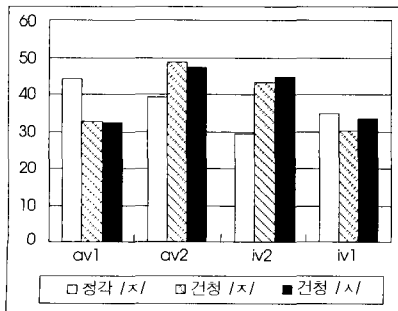


Fig. 3. /z/으로 왜곡 및 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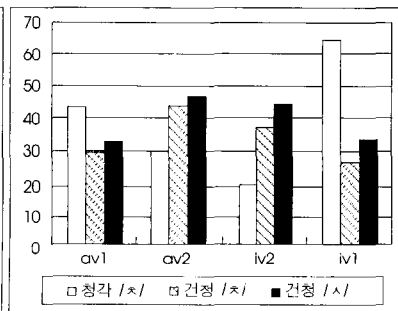


Fig. 4. /ʃ/으로 왜곡 및 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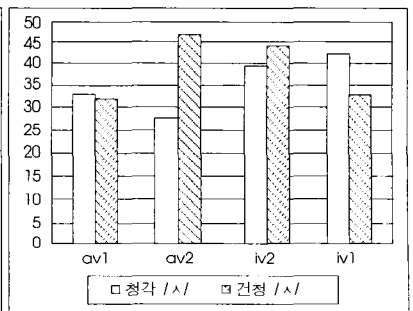


Fig. 5. /s/으로 정조음.

마찰음 /s/가 청각장애 아동의 선·후행하는 모음의 지속시간에 미치는 영향

음 지속시간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청각장애 아동의 지속시간은 자음에 따라 선·후행하는 모음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음절 내 음소의 위치 역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